

사회

# 교통위반 딱지 하루 700장 떼는 광주

## F1·디자인 비엔날레 등 외국인 발길 부쩍 늘는데 과속... 급차선 변경... 요란한 경적... 부끄럽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이현식(42)씨는 지난달 2일 광주시 북구 무등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옆 차선을 달리던 &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 이후 이씨는 옆 차선의 차량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난다고 한다.

이씨는 "출·퇴근길 차선이 넓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마치 자동차 경주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며 난폭운전에 진저리를 쳤다.

'난폭운전'이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

제적인 이벤트인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등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행태는 줄지 않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이달 현재까지 신호·속도위반·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범칙금 부과건수는 19만8372건으로, 줄잡아 하루 708건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된 셈이다. 지난해와 2009년 범칙금 부과건수는 각각 35만1882건과 41만4394건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난폭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거나, 다른 운전자를 자극해 '대응 난폭운전'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8849건(사망자 120명, 부상자 1만4523명)이다. 이중 끼어들기·중앙선 침범·과속 등 난폭운전 등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정지 ▲급서행 ▲급차로변경 ▲뒤따르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 켜기 ▲바짝 따라붙는 위험운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도로의 무법자"로 불릴 만큼 난폭운전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이지만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고령 운전자들에게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도로를 달리는 것 자체가 '공포'다.

난폭운전은 늘고 있음에도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해 불법유턴, 차선위반이 운전자들에게 예사로 통한다.

이같은 안전불감증은 교통사고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각동삼삼 흥플러스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레조 승용차가 제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께에는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앞 도로에서 1t 화물차와 그랜저 승용차가 충돌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운전을 한 것이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상대 운전자를 무시하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행위"라며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한다면 수준 높은 도시 이미지를 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인화학교 인권위 조사

## "혐의인 학생들 퇴소 억지로 막은 듯"

### 지나주 사전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직권조사와 방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나주 사전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관이 지난 2006년 인권침해로 고발된 이후에도 인권침해를 했을 개연성이 있고, 최근 법안허가 취소를 앞두고 학교 측이 학생들의 퇴소를 막기 위해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긴급 임시 상임위를 통해 장항숙 상임위원

이 방문조사단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우석재단의 직업재활 학교와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인화학교와 인화원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한 사안에 대해 방문 조사와 직권조사를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교사와 교직원, 보육교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광주광역시에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 10억 횡령 전남교총 前 회장 등 재입건

## 광주경찰, 교육의원 출마 돈 받은 회장 직대도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10억대 공금을 횡령한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 사무총장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회장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현 전남교총 회장 직무대행 김모(62)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회장 김씨와 정씨는 2006년 1월 "회원 수를 늘리는 데 쓴다"며 교원운동기금 2억1000만원을 쓰는 등 지난해 말까지 적잖이

금 3억5000만원, 주식매매대금 1억6000만원, 회비 2억4000만원 등 10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남교총 회관 리모델링과 스크린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 비용이 2억9000만원인데도 견적서에는 4억8000만원으로 적어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관련해 보성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현 전남교총 회장 직무대행인 김씨는 전남교총 부회장을 맡았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전 회장 김씨 등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순천 왕지동 아파트사업 인허가 로비

## 부산저축銀서 거액 수수 변호사 체포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순천 왕지동 아파트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판사 출신 서모(49)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주)낙원주택건설의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수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1996~2003년 전주·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씨는 지난 6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검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가족과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해왔다. 이에 검찰은 전남추적반을 구성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서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 14일 중 변호사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북에 군사기밀 넘긴

## '흑금성'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북 공작원 출신 박모(57)씨에게 징역 6

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3년 3월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경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압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내 건강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만도·신장기능검사 등 다양한 검진이 이뤄졌다.

13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두암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내 건강수준 알기의 날' 캠페인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북구청 주최로 열린 이날 캠페인에서는 간 기능·고지혈증·비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공군부대 전투기 훈련때마다 광산구청 공무원들 야근 왜?

## "비행기 소음 시끄럽다" 항의 전화 받느라 밤샘 근무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광주 광산구청 5층 전락사업단 사무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청사 건물 위를 통과한 직후 사무실 전화 벨이 울렸다.

구청에 전화를 건 사람은 광산구의 한 주민. 이 주민은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투기 소음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전화 받은 모든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철수할 때까지 쉬지 않고 울려댔다.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전투기 훈련 일정에 맞춰 야근을 하고 있다. 전투기 훈련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다.

13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인근 공군 부대에서 전투기 훈련이 이뤄질 경우 관련 부서 민원 전락사업단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야근을 하고 있다.

야근은 훈련이 끝나는 밤 9시까지 계속된다.

주민들은 야근하는 구청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투기 굉음이 놀란 아기가 경기를 일으킨다"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군 부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인 수완지구 등에서도 민원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광산구는 전투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단체 대표

들과 함께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또 전투기 훈련 최소화 등의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항배 광산구청장은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비협조를 이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대기자 wtkee@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인 인기

##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감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가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재질(PP,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변색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설치장소

형광등용

디오라이팅용

삼파장용

애로반사갓

DIV세트

광주지역 : 한빛고시학원, 갤러리존, 대림물류센터, 청연한방병원, 텃밭, 양동시장 외 200여곳  
 기타지역 : 송파도서관, 제주한화리조트, 인제대학교, 우체국, 오뚜기, 이마트성수점  
 홈플러스 강서점, 700마켓, 롯데마트,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인천국제공항.

(주)우림네트웍스  
**062-251-9792**  
 www.donbandi.com